

동서양 문명을 통해 본 춤의 원초적 특징 비교

이 병 옥

용인대학교 교수

I. 기(起) - 동서양 개념과 문명론	IV. 결(結) - 동서양 춤정신과
II. 동서양 인종의 형질적 차이와 춤 특징	양상 비교
III. 동서양 생업과 식생활 문명차이와	참고문헌
춤 특징	ABSTRACT

I. 기(起) - 동서양 개념과 문명론

동양과 서양은 역사·지리적 및 정치·문화적 복합개념으로서, 그 개념의 복잡성만큼이나 이해하는 데에도 복잡한 과정을 거쳐왔다. 또한 동양(東洋, the Orient)은 동방(東方, the East), 서양(西洋, the Occident)은 서방(西方, the West, 때로는 西歐, 유럽)에 대한 범칭으로서 동서양인이 공히 그 범주를 인정하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동양인과 서양인은 서로 다른 필요에서 출발하여 서로 다른 기준으로 그 개념을 제시하였다. 그 과정을 통관하면 중세적 개념과 근세적 개념으로 대별할 수 있다.

중세적 개념은 중세(13~17세기)에 중국인들과 중국에 온 유럽선교사들 사이에서 제시된 개념이며, 동양과 서양에 대한 근세적 개념이란 18세기 이후 유럽 중심주의를 지향한 유럽인들이 제시한 새로운 개념이다. 일찍부터 유럽인들에게는 ‘동(東)’이나 ‘동쪽지방’이란 지리적 및 역사적 개념이 있

어 왔다¹⁾.

그런데 오늘날에는 6대주 중의 하나인 '아시아(Asia)'²⁾란 용어를 많이 쓰고 있다. 근세에 와서 유럽인들이 사용하는 '아시아'란 용어는 지리적 개념과는 별도로 주로 정치·문화적 개념에서 말한다. 그들은 유럽을 기점으로 동과 서를 구분하였는데, 대체로 터키 이동에 위치한 아시아 지역을 일괄하여 동으로 통칭하였다. 즉 우랄 산맥~흑해~지중해~홍해를 연결하는 남북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동(以東)은 동(東)이고, 그 이서(以西)는 서(西)로 대별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유럽인들은 중국인들처럼 어떤 자연환경적 요인(바다나 산맥 등)을 기준으로 하여 동서를 구분한 것이 아니라 순수 자기중심주의적 발상에서 출발, 정치적 고려에 따라 인위적으로 동서를 나누어놓고, 모든 면에서 동서간의 관계를 대립 관계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교류의 무한대 확산 시대를 맞아 인위적으로 조성된 동서간의 갈등과 대립 관계는 점차 화해와 협조의 공생 관계로 바뀌어가고 있다.

한편 문명(Civilization)이란 인간의 육체적·정신적 노동을 통하여 창출된 결과물(結果物)의 총체로서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으로 대별된다. 문명의 생명은 공유성(共有性)이다. 인류 문명은 자생(自生)과 모방(模倣)에 의해 탄생하고 발달하며 풍부해진다. 자생성은 문명의 내재적이고 구심적인 속성으로서 문명의 보편성(普遍性)과 개별성(個別性)을 규제하고, 모방성은 문명의 외연적(外延的)이고 원심적(遠心的)인 속성으로서 문명의 전파성(傳播性)과 수용성(受容性)을 결과한다. 따라서 자생성과 모방성은 문명의 2대 속성인 동시에 그 발생·발달의 2대 요소이기도 하며, 서로 상보상조적 관

1) 정수일(2001). 『고대문명교류사』(서울: 사계절), pp. 15-21.

2) 아시아는 원래 앗시리아어에서 '일출(日出)'을 뜻하는 단어 'assu'가 그 어원인데, 역사 기록에 의하면 기원전 1235년경 흑해 지방으로부터 바빌로니아까지 지배하던 히타이트(Hittite)왕이에게 해 동쪽에 있는 '앗수바(Assuva)'란 부족, 또는 그 연합체의 영토를 정복한 바 있다. 이 '앗수바'는 일출을 뜻하는 'assu'에서 연유된 것으로 짐작된다. 후일 그리스인들 역시에게 해 동쪽에 있는 '무한대의 대륙을 막연하게나마 '동쪽 지역'이란 뜻의 '아스바(Asva)'로 지칭하였다. 그러다 근대에 와서 서양인들이 식민지 대상이 된 동방을 지칭하기 위해 고대 그리스인들이 '동쪽 지방'이란 뜻으로 사용하던 '아스바(Asva)'를 유사음인 '아시아(Asia)'로 재생시킨 것이다. 동양인을 비롯한 세계인들이 이를 답습함으로써 오늘날엔 '아시아(Asia)'란 관용어로 굳어버렸다.

계에 있다.

오늘날 문명(Civilization)에 관한 논급에서 심히 혼돈되는 것이 문화(culture)와의 관계 문제다. 문화는 문명을 구성하는 개별적 요소이며 그 양상이다. 문명과 문화의 관계는 위계적(位階的) 관계가 아니라 총체와 개체, 복합성과 단일성 내재와 외형, 제품과 재료의 포괄적 관계다. 비유컨대 문명이 총체로서의 피륙이라면 문화는 개체로서의 재료인 줄, 즉 씨줄과 날줄에 해당한다. 여기에 부침(附添)된 문양 따위는 또 다른 재료로서의 문화현상이기는 하나, 그 바탕은 어디까지나 씨줄과 날줄이다. 개체와 재료로서의 문화도 물질 문화와 정신 문화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물질 문화를 씨줄이라고 하면 정신 문화는 날줄에 빗댈 수 있다. 마치 씨줄과 날줄이 엮여서 피륙이 되듯이 물질 문화와 정신 문화가 융합되어 문명이란 하나의 총화물(總和物)이 형성되는 것이다. 그런데 재료(문화)로서의 줄도 따지고 보면 또한 몇 가지 재료로 구성된 제품이다. 물론 이 제품은 문명으로서의 제품이 아니라 문화로서의 제품일 뿐이며, 그것을 구성한 재료는 세분(細分)문화라 할 수 있다. 예컨대 농경문화나 종교문화 같은 것이 이 세분문화에 속한다. 이런 식으로 세분문화는 또 미세분문화로 분화한다.

이질문명간이나 동질문명내의 세분문명이나 미세분문명간의 구분은 상이한 경제권이나 문화권, 지세권(地勢圈) 등으로 나눈다. 대표적인 것이 경제권에서 농경문화권과 유목문화권이며, 문화권은 다양한 미세분문화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종교문화는 기독교 문화권과 유교문화권, 이슬람문화권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지세권은 해양문화권과 대륙문화권으로 나눈다.

동서양 춤문화는 인류문명권 중 양대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동양문명권과 서양문명권 속에서 각기 다른 환경에 적응하면서 형성된 인류문화의 한 양상이다. 원시인류는 척박한 환경에 적응하고 극복하면서 삶의 방편으로 춤이라는 문화를 통하여 희노애락의 감정을 표현하고 공존의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전승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춤양식을 만들어 냈으며, 문명권 또는 문화권에 따라 보편성과 개별성을 지닌 각기 다른 성격의 춤으로 발전하였다. 동서양 문명적 차이는 춤의 정신적인 면, 즉 종교관, 우주관, 인생관, 자

연관, 생활관 등의 차이에 따라 색다른 춤문화를 창조하고 향유해왔다.

그러나 동서양 문명이나 문화를 비교할 때 비교대상과 기준을 정하는 것도 너무나 다양하여 애매하고 막연하다. 마찬가지로 동서양 춤문화를 비교하는 것도 참으로 막연하고 다양하여 비교대상을 삼기도 어려운 일이다.

서양의 전통춤은 민족마다의 포크댄스와 캐릭터댄스가 있으며, 또한 전 유럽에 풍미한 가장 대표성을 띤 발레가 있다. 그러나 동양은 민족마다 제각기 다양한 문화권을 형성하면서 일관된 춤문화는 없지만 다양한 문화를 향유해온 것이 오히려 동양적인 춤특징이다. 그렇지만 한중일 동북아시아 문화권이 동양문명을 대표해왔고, 그 중에 한국전통춤은 지정학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중간적 위치에 있어 동북아시아를 관통하는 춤의 근원적인 요소를 충분히 지니고 있다³⁾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당위성은 이미 이전 논문(김말복, 2001)에서도 밝힌 바 있으므로 더 이상 논의는 생략하고, 본고에서는 동서양 춤정신의 원류가 되는 인류문명의 원초적 배경으로 나타난 춤양상의 근원적인 특징을 비교하는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형질인류학(形質人類學)적 접근으로 동서양인들의 체형과 체격과 얼굴모습 등의 형질적 차이에서 오는 춤의 특징을 고찰하고, 이어서 문명의 시초가 되는 생업과 식생활에서 형성된 문화적 특성으로 비롯된 춤의 특징을 고찰하고자 한다.

II. 동서양 인종의 형질적 차이와 춤 특징

우리 인간의 직계조상은 원숭이와 같은 영장류에서 분리 진화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Australopithecus afarensis*)⁴⁾로, 약 500만년 전 아프리카 사바나 기후 지역에 거주했던 최초의 인류인 직립 원인(猿人)이다. 다

3) 김말복(2001). 춤에 나타난 동서양 사고, 『무용예술학 연구』 제6집, 한국무용예술학회, p. 45.

4) 이영록(1995). 『인류의 기원』(서울: 범문사), p. 232.

음으로 진화된 호모 하빌리스(Homo habilis)는 약 200만년 전 동아프리카에 거주, 간단한 도구(찍개) 사용하였고, 그 다음 호모 에렉투스(Homo erectus)는 약 170만년 전 인도네시아의 자바, 중국 화북 지방, 독일, 아프리카의 올드바이 계곡 등지에 거주, 불사용, 동굴 생활, 아슬리양식 주먹도끼를 사용하였다.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s, 네안데르탈인)는 약 10만년 전(약 40만년 전부터 에렉투스에서 변화)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등지에 거주, 추위에 잘 적응, 도구 사용, 매장 풍습이 있었다.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Homo sapiens sapiens)는 약 4만년 전 출현, 현생 인류의 시조, 동굴 벽화 등 예술 발달, 다양한 도구 발달, 1만년 전 농경을 시작하였다.

미국 워싱턴대 앨런 템플턴 교수는 저명한 과학잡지 '네이처(nature)' 2002. 3. 7일자에 발표한 논문에서 인류가 발상지인 아프리카를 떠난 것은 170만년 전, 60만년 전, 그리고 10만년 전 등 모두 세 번이었던 것으로 유전자 분석 결과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세계 민족을 대상으로 성염색체, 미토콘드리아, 그리고 일반 염색체 등 10곳의 유전자를 분석해 컴퓨터로 이를 분석했다. 그리고 "유전자의 패턴은 아프리카에서 새로 이주해온 사람과 이미 나와서 유라시아대륙에서 살던 사람이 교잡을 해 그 후손이 현재 인류가 되었다는 점을 말해준다"고 밝혔다.⁵⁾

다음은 현생인류의 3대 인종인 서양 백인종과 동양 황인종과 아프리카 흑인종을 특징적인 부분만 비교한 것이다.

- ① 서양 백인종(caucasoid): 유럽, 서남 아시아, 북부 아프리카 및 신대륙(아메리카와 오스트레일리아)에 거주. 밝은 갈색 피부, 파상 모발(색 다양), 푸른 눈(또는 회색), 좁고 높은 코, 긴 얼굴, 체모 많음, 머리카락 색깔 다양하고 분포 범위가 가장 광범위하다.
- ② 동양 황인종(mongoloid): 남부 아시아 및 서남 아시아를 제외한 아시아 전역. 넓은 얼굴 낮은 코, 검고 굵은 직상모, 황갈색 피부, 흑갈색

5) 동아일보, 2002. 3. 13. 신동호 동아사이언스기자, dongho@donga.com

눈, 몽고 반점, 체모 적음, 눈꺼풀에 피하지방이 있고 세계 인구의 약 35% 차지(인구 수 최대)하고 있다.

- ③ 아프리카 흑인종(negroid):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와 카리브해 연안. 검은 피부, 흑색 곱슬머리, 두터운 입술, 넓고 낮은 코, 검은 눈, 큰 둔부가 있다.⁶⁾

1. 동양인의 형질

아시아 인종은 몽골로이드(Mongoloid), 몽골리언, 몽골인종이라고 하며 동양인을 대표한다. 시베리아와 중국 등의 일대에 분포해 있으며, 홋카이도나 사할린에 분포해 있는 아이누족, 인도네시아 인종, 북태평양과 미국대륙에 분포한 인디언·에스키모, 팜파스의 아인종 등으로 구분된다. 주로 황갈색 피부이며, 모발은 검고 직모(直毛)이다. 눈은 검고, 어린애에게는 둔부(臀部)에 몽골반(斑)이 나타난다.

초기 남방계 몽골리언은 지금부터 4만~2만5천년 전 무렵 아시아대륙의 남쪽, 태평양의 하와이와 폴리네시아 제도 등에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현재의 동남아시아인처럼 눈이 크고 쌍꺼풀이 발달했으며, 팔과 다리가 긴 호리호리한 몸매를 지녔다. 이들의 일부가 3만년 전 정도에 북쪽으로 이동해 오늘날의 몽골 고원, 고비 사막, 그리고 티베트에 정착했다. 그런데 당시 내륙아시아의 기후는 현재보다 훨씬 춥고 모질었다. 새로운 환경과 투쟁하면서 이들의 신체적 형질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다. 강풍과 추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눈은 작아지고, 습기가 차 얼어붙을 틈을 주지 않기 위해 체모의 숫자는 줄어들었다. 체열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전체적으로 다부지고 뚱뚱한 체형을 가진 새로운 인류가 등장했다. 바로 한국인을 포함한 북방계 몽골리언이다.⁷⁾

오늘날 북방계 몽골리언에 속하는 대표적인 민족은 몽골족, 퉁구스계의

6) http://jongmoon.pe.kr/hakseup_geo/geow_hakseup/injong_munha/injongmunha.htm

7) <http://www.chemmate.com/sence/s35.htm>

소수민족들, 중국의 신장웨이우얼 지역부터 카자흐스탄을 거쳐 터키까지 퍼져 있는 투르크계(우리 역사에는 돌궐로 기록된) 민족, 일본인, 그리고 약 1만3천년 전 북방계에서 갈라져 나와 미 대륙으로 진출한 북미의 인디언, 남미의 인디오들이다.

우리 민족의 원류가 북방계 80%와 남방계 20%로 이뤄져 있다는 것은 학계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한민족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이들 북방계를 살펴보면 확연히 눈에 띄는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예컨대 엉덩이에 푸른 반점, 북방계는 눈에 쌍꺼풀이 지지 않고 눈두덩이가 두꺼우며 ‘몽골주름’ (Mongolian Eye Fold 또는 Epicanthic Fold)⁸⁾이 있어 뱀새눈(almond eyes)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머리 형태가 둥글고 얼굴이 편평하고, 하악골이 발달하여 네모진 얼굴이 많고, 코는 평퍼짐하고 광대뼈가 다소 튀어 나왔으며 모발은 굵고 뺏뺏하다. 백인에 비해 수염이 적은 것은 안면에 습기가 맺혀 동상에 걸리지 않게 하려는 자연선택의 결과다.

우리 신체의 여러 가지 특성으로 미뤄볼 때 우리의 조상은 추운 곳에서 살며 적응해 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 지금도 지구상의 가장 추운 곳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북방계 몽골리언들이다. 북극 지역의 에스키모들, 시베리아에 퍼져 살고 있는 퉁구스계 소수 민족들, 몽골 고원에 사는 몽골인들이 그들이다.

우리 민족의 조상은 북방계의 형질을 획득한 뒤 남하해 만주와 중국 북방 등지에 거주하다가 한반도에 정착하면서 본격적인 농경 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추측된다.

8) 한반도로 인구가 이동하던 2만 5000년 전에는 기온이 영하 50도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그들은 눈동자의 동상을 막기 위해 실낱같이 눈을 뜰 수밖에 없었다. 눈가 양미간 쪽으로 내려와 있는 윗눈꺼풀의 연장부분인 ‘몽골주름’ (Mongolian Eye Fold 또는 Epicanthic Fold)은 브리태니커 사전에는 “몽골주름은 아시아 지역 인종 눈가 안쪽의 특징적인 주름으로, 북미 인디언에게서도 발견된다” 라고 쓰여있다. 이처럼 쓸모없어 보이는 몽골주름이 한국인에게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형질 인류학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몽골주름은 안구가 외부와 접촉하는 면을 줄이기 위해서 발달한 살 꺼풀이다. 바람이 세차게 부는 추운 겨울에 별판을 걸을 때면 누구나 눈을 가늘게 뜨게 된다. 너무 추우면 안구의 습기까지 얼어붙기 때문이다.

남방계는 이와 달리 눈에 쌍꺼풀이 지고 코가 오뎅하며 북방계에 비해 피부는 다소 검고 꺼칠하다. 우선 남방계는 얼굴의 모습이 북방계에 비해 좁으며, 따라서 상대적으로 얼굴이 가름해 보인다. 턱의 모습을 보면 북방계는 다소 넓고 모가 진 반면에 남방계는 하관이 빨다.

이것은 육식을 주로 하던 북방 유목민족과 채식을 주로 하던 남방계의 진화 형태가 다르기 때문이다. 머리칼은 북방계에 비해 더 가늘거나 보드랍고 곱슬머리인 경우도 있다.

남방계와 북방계가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체형이다. 북방계는 다리가 남방계보다는 긴 반면에 상체가 다소 왜소해 보이고 손이 짧다. 기골이 장대한 듯하면서도 가슴이 좁은 체형은 북방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반면에 남방계는 손이 길고 상체가 발달해 어깨가 벌어졌으나, 다리가 짧아 약간 안짱다리의 모습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양 상태가 거의 같이 발달한 오늘날의 신세대에게서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앓은키는 일본인이 더 컸고, 선키는 북방계 한국인이 더 컸다. 초원을 달리던 북방계의 다리가 더 길고, 밀림에서 생활하던 남방계의 팔이 더 긴 것은 진화의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일반적으로 동양인의 손가락은 동물학의 ‘앨런의 법칙⁹⁾’에 따라서 백인이거나 흑인의 그것보다 덜 가느다랗고, 더 짧고 뭉툭하여 섬섬옥수(纖纖玉手, 가느다랗고 흰 손가락)가 드물다.¹⁰⁾

2. 서양인의 형질

코카소이드(Caucasoid)는 백색인종·유럽인종을 이르는 말로, 유럽을 중

9) 동물학의 ‘앨런의 법칙’에 따르면, 포유동물의 종은 추운 곳에 사는 것일수록 신체의 돌출 부분(코, 귀, 꼬리 등)이 작아지고 등근 체형으로 가는 경향이 있다. 체표 면적의 비율이 작아질수록 체온 유지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열대지방에 사는 코끼리의 코, 귀, 꼬리는 시베리아의 흑한 지대에 살던 털맘모스 미라의 그것보다 훨씬 크고 넓다. 열대지방에서는 체표면적이 넓어야 체열을 방출하기가 쉽고, 반대로 한대지방에서는 좁아야 체온 유지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앨런의 법칙은 포유류인 인간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열대에 사는 흑인들은 팔, 다리, 손가락이 길다. 백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10) <http://www.burimhong.pe.kr/news02/008%20han%20min%20jok.htm>

심으로 북아메리카·서아시아에 사는 인류집단이다. 코카소이드는 코카서스라는 유럽의 조그마한 지방의 명칭에서 유래하는 카프카스인종(코카소이드)이라는 말로써 전체 백색인종을 가리킨다.

이들은 색소가 적은 피부색, 회색·청색·녹색의 홍채(江彩), 금발·갈색의 모발을 가지는데, 피부가 흰 것은 자외선이 약한 지역에서 생긴 돌연변이로 생각된다. 신장은 스칸디나비아의 고신장인 사람들로부터, 알프스지방의 중신장인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체모가 많은 것, 쌍꺼풀과 눈자위에 누구(淚丘)가 노출되어 있는 것, 코가 매우 좁고 높은 것, 입술이 얇은 것 등이 공통된 특징이다.

유럽에 주로 거주하는 백색인종은 북방형 인종(Nordic)·알프스형 인종(Alpine)·지중해형 인종(Mediterranean)·디나르형 인종(Dinarics) 그리고 동유럽형 인종 등 크게 다섯 종류로 구분된다.

북방형 인종은 주로 북부 유럽에 거주하며, 특히 스칸디나비아반도, 덴마크, 핀란드 서부, 폴란드, 독일, 네덜란드의 북부, 벨기에, 프랑스의 북부 해안, 브리튼 제도, 영국·아이슬란드에 많다. 신체적 특징으로는 피부색이 희고, 키가 크며(173 cm 이상), 머리는 장두형(머리지수 79 이하)이 많다. 코지수는 65 이하로 좁고 높은 것이 특색이며, 무엇보다도 남부 지역의 인종보다 신체적으로 큰 것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알프스형 인종은 피부색이 대체로 희지만 북방형 인종에 비해 색소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모발은 갈색 또는 밤색이다. 키는 대체로 작고(163~164 cm) 몸에 비해 팔·다리가 짧은 것이 특색으로 땅딸막한 인상을 준다. 이들 알프스형 인종은 프랑스 중부지방·이탈리아 북부지방·독일 남부지방·헝가리 등지에 주로 거주한다.

지중해형 인종은 키가 작고(163~164 cm) 머리는 장두형이며, 얼굴은 달걀형의 긴 얼굴이다. 머리카락은 파상형이 많고 대부분의 경우 얼굴 전체의 길이에 비해 위 부분이 긴 것이 특징이다 이탈리아 남부, 지중해의 도서지방, 발칸 반도의 남동부에 주로 거주하고 있다. 디나르형 인종은 키가 크고(168~172 cm) 마른 편으로, 단두형(短頭型)이 많고, 특히 뒷머리가 편평한

것이 특색이다. 유고슬라비아와 알바니아의 디나릭알프스산지가 이들 인종의 주요 거주 지역이다.

동유럽형 인종(동발트해 인종이라고도 한다)은 북방형 인종보다 피부색이 희고, 키는 작으며(156~169 cm) 머리는 단두형이 많다. 얼굴은 넓고 광대뼈가 나왔으며 코는 짧고 요곡선형(凹曲線型)이다. 이들 인종은 동부 유럽에 산재하며, 시베리아 지방에도 살고 있다. 이들 5대 인종 외에도 아시아 인종 계통의 마자르인(헝가리), 핀족(핀란드) 등이 있다.¹¹⁾

이상과 같은 유럽의 다섯 인종 중에 대표적인 인종은 북유럽인종(Nordic)으로 머리카락은 금발·갈색이며, 눈은 다양한 색이다. 피부는 새하얗지만 주근깨가 잘 나타난다. 코는 좁고 돌출 되었으며, 얼굴은 길고 입술은 얇다. 키가 크고 신체가 비교적 날씬하나 어깨는 넓다.

북유럽인종의 특징은 높은 위도(緯度)의 냉한 지역에 잘 적응하는데, 오늘날에는 정치적·문화적으로 세계의 지도적인 입장이고 인구도 매우 많다.¹²⁾

3. 동서양 인종의 형질에 나타난 춤 양상

이상과 같이 동서양 인종의 형질이 달라짐에 따라 춤추는 모습도 다르게 보이는 것인데, 동서양인의 형질에서 가장 큰 특징은 키와 체격의 크기, 사지의 길이, 얼굴의 모습이다.

여기서 춤과 관련하여 가장 관심의 초점이 되는 것은 키와 사지의 길이라고 본다. 그러면 왜 인종별로 키가 차이가 나는가? 그것은 인류가 생태학적으로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다. 우선 초원지대 인류와 밀림지대 인류는 키가 다르다. 초원지대 인류는 먼 곳을 바라보면서 맹수를 피하고 초식동물을 사냥하기 위해서는 다리가 길고 키가 커야 했다. 따라서 유전적으로 키큰종의 인류만이 용불용설(用不用說)¹³⁾과 적자생존(適者生

11) <http://my.dreamwiz.com/geophill/study/study2044.html>

12) <http://www3.joins.co.kr/mm/world/race/race.htm>

13) 용불용설(라마르크): 생물의 개체는 환경에 적응하고자 하는 내적 욕구를 가지며, 또 내

存)¹⁴⁾의 법칙에 따라 기동력있게 살아남아 키가 커졌다.

반대로 밀림지대는 나무열매를 따먹기 위해서는 나무타기에 적합한 짧고 튼튼한 다리와 열매따기에 적합한 긴 손과 팔의 형질이 유전되어 키가 작으나 손팔이 길어졌다.

대체로 북방한랭지역에 초원지대가 많아 키가 크고, 남방열대지역에 밀림지대가 많아 키가 작다. 그런데 똑같이 북방에 있는 유럽인과 아시아인의 키는 차이가 나는가? 유럽북부는 일조량이 적고 해양난류의 영향으로 따뜻하여 초원지대가 많아 키 큰사람이 많으나(지중해 인종은 남방적 요소로 작용), 아시아북부는 추운데다 설상가상으로 빙하기를 지내면서 앨런의 법칙과 같이 팔다리가 더 작아졌기 때문이다.

서구식 극장무대의 구조는 키 큰 서양무용수의 체형구조에 맞는 구조물인데, 상대적으로 왜소한 동양의 무용수들이 키 큰 서양인 조건에 맞는 무대에는 아무래도 불리하다. 그래서 동양인들은 예로부터 그렇게 큰 무대도 없었고 근거리무대에서 춤을 추었던 것이다.

사지의 길이마저 서양인들은 늘씬하고 미끈한 팔다리로 마음껏 나래를 펴고 춤을 추지만, 동양인들은 짤막한 팔다리로 마음껏 팔다리를 펴는 춤사위를 출 수가 없기 때문에 서양춤처럼 짹짹 뻗는 활개짓 춤사위가 발달하지 못하였다. 다만 손과 팔을 굽혔다 폈다, 옆었다 제쳤다, 감았다 풀었다하는 휘젓는 손팔춤사위가 발달하였다.

아울러 짧은 손과 팔을 극대화하기 위해 한삼이나 무구(舞具)을 많이 사용하는 것도 그런 연유에서 비롯된 경우가 있다.

얼굴모습에서도 서양인들은 대극장 2, 3층까지 높고 먼 객석에서도 춤의

적 육구에 따라 스스로 형질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다. 나아가 한 세대동안 환경에 맞도록 변화된 개체의 표현형적 형질, 즉 획득형질은 어버이에서 자손으로 유전된다는 설. 이 설은 1809년 프랑스 라마르크는 화학진화로 생긴 최초의 생물진화를 설명하기 위해 동물의 기관 중에서 많이 쓰이는 것은 점점 발달하고 반대로 쓰이지 않는 것은 퇴화한다는 「용불용설」을 제안했다.

14) 적자 생존과 자연선택: 모든 생물은 개체마다 변이가 있으며, 이들 중에 환경에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살아남는다. 그리고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개체는 도태된다. 즉, 생존에 유리한 형질은 자연에 의해 선택된 것이다.

움직임을 감상하고, 원거리에서도 얼굴의 윤곽을 확연히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눈·코·귀·입이 크지만, 동양인들은 대극장 무대에 서면 객석에서 얼굴의 이목구비(耳目口鼻)가 밋밋하여 분간하기 어려운데다 광대뼈까지 튀어나오고 하악골마저 펴져 표정은 더더욱 알 수 없어 서양식 대극장에서 표정춤과 연기는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니까 무대화장이라는 분장을 통하여 시꺼먼 눈썹과 눈화장을 하고, 납작코를 살리기 위해 입체코화장을 하고 작은 입을 감추기 위해 크고 진한 립크림을 발라 과장된 무대분장이라는 고육지계(苦肉之計)를 쓰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동양공연예술은 일본의 가부키(歌舞伎)나 노(能)극장처럼 동양인의 신체구조에 맞는 근거리 감상구조와 밝은 조명으로 밋밋한 얼굴이나마 볼 수 있는 전통극장이 필요한 것이다.

게다가 북방계 몽골리언은 상체가 다소 왜소해 보이고 손이 짧고 기골이 장대한 듯하면서도 가슴이 좁은 체형으로 춤추는 모습에서도 팔동작이 작고 왜소한 동작으로 보이며, 손도 짧아 섬섬옥수(纖纖玉手)의 손가락춤은 존재하지 않으며, 손은 힘빠져 오그린 모습인데, 이것을 자연스런 손맵시라고 위안을 삼을 뿐이다.

또한 빙하기를 견뎌내면서 눈보라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폭폭 빠지는 눈발을 걷다보니 엉거주춤걸음이 퇴행적으로 진화되어 오늘날 동양인들의 춤에서 보이는 무릎굴신걸음이 생겨났다. 다리근육은 발달하여 그렇지 않아도 짧은 다리가 통다리가 되었고 엉덩이 근육마저 쳐져 도저히 서양무용수처럼 미끈한 다리를 노출시킬 수 없어 옷으로 아예 감추는 무복과 춤사위가 발달하였다. 설상가상으로 눈발에서 빠지지 않으려고 발바닥은 설피처럼 넓어지고 뒤편치는 빠져나가 뒤편치 딛음 걸음춤이 보편화되었고, 토슈즈를 신어도 맵시가 나지 않는 발맵시가 되고, 기형발가락이 서양무용수보다 많이 생기게 된다.

서양인은 온난한 기후로 사람들이 가슴을 펴고 살아서 곧은 자세로 춤을 추는 가슴펴기춤인데 반해, 동양인은 추운 지방에서 살아서 가슴을 오그리는 자세에 익숙해져 춤추는 자세도 상체를 굽히고 안으로 가슴오그린춤이 많다.

아울러 동양이 서양보다 춤기 때문에 옷의 의존성이 높아 무복으로 온몸을 감싸며, 늘씬하지 않는 팔다리여서 노출을 꺼리는 성향(윤리도덕적 차이도 있지만)으로 감추는 춤이 발달하였으나, 서양은 날씬도 춤지 않고 미끈한 팔다리를 마음껏 펼쳐 보일 수 있는 노출의 춤이나 팔다리의 움직임이 잘 보이는 무복을 입고 춘다.

한편 동양에서도 북방과 남방의 춤이 형질적으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남방계몽골리언, 즉 인도와 태국 발리 등 동남아시아인들의 춤사위는 밀림에서 열매채취를 위해 나무타기를 하면서 길어진 팔과 손가락 덕분(긴팔원숭이처럼)에 긴 손가락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손가락 춤사위가 발달하게 되었고, 몽골주름이 없어 상대적으로 커진 눈망울을 휘돌리는 눈춤사위가 특징이 되었다. 그리고 북방계는 목도 짧아 고개춤이 별로 없으나 남방계는 하관이 짧고 목이 상대적으로 길어 목을 좌우로 움직이는 목춤이 있다. 또한 남방계는 하체가 북방계보다 짧아 하반신 굴신폭이 커 보여 북방계보다 앉은뱅이춤이 많다. 또한 남방계는 북방계보다 엉덩이가 더 큰 것은 아니나 키가 작아 상대적으로 키에 비해 엉덩이가 큰 편이며, 체중중심점이 낮아 엉덩이를 흔들어도 안정감이 높아 엉덩이춤이 발달되었다. 남방계 엉덩이춤은 큰 둔부형질을 지닌 아프리카 흑인부터 지중해 단신인종, 중동지역, 인도, 동남아시아를 거쳐 하와이로 이어지는 지구 남반구지역의 공통적인 춤사위이기도 하다. 이에 비해 북방계 동양인들은 어깨춤을 춘다. 어깨춤을 추는 지역은 한국을 비롯하여 몽골, 중국의 동북 지역과 일본의 일부 지역 그리고 시베리아 지역의 에스키모인 등의 춤에서 볼 수 있다. 어깨춤은 흥을 일으키는 기능, 감정을 조절하는 기능, 그리고 박자를 맞추는 기능을 가진다.¹⁵⁾

엉덩이춤(臀部舞)이나 어깨춤은 굴신폭이 없이 온몸을 쭉 뻗고 추는 서양춤에서는 없는 동작이지만, 굴신폭이 있는 동양의 춤에서는 중요한 춤사위이다. 다만 북방계와 남방계가 다른 이유는 신체적 조건과 기후적 조건

15) 이병옥(2000). 『한국무용민속학 개론』(서울: 도서출판 노리), pp. 80-81.

과 이동생활적 조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생성된 춤사위로 춤인류학의 중요한 연구과제이다.

우선 굴신춤은 두 가지 동작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몸통(胴體) 전체를 상하로 움직이는 상하굴신춤이며, 또 하나는 몸통을 굽힌 채 좌우로 움직이는 좌우굴신춤이 있다.

북방계는 하체가 발달하여 상하굴신춤과 좌우굴신춤이 있으나 상하굴신춤이 더 발달하였다. 첫째, 추운 북부지방이라 상하굴신춤을 추어야 온몸이 빨리 열이나 추위를 이겨낼 만큼 운동량이 좌우굴신춤보다 크기 때문이다. 둘째, 지구중력을 역행하면서 움직이므로 힘이 들며 또 몸통 전체를 들었다 놔다 하므로 운동량 크기 때문에 땀이 나면서 금방 신명(神明)이 솟는다(이 신명은 무당들의 점신과정에서는 도약무로 발전한다). 몽골리언들의 신명은 어깨춤에서 나온다. 셋째, 북방계는 상체가 남방계보다 덜 발달하고 손가락이 짧아 손가락춤을 출 수 없으나 대신 어깨춤이 주종을 이룬다. 넷째, 어깨춤은 상하굴신춤의 상체 운동기전으로 동체굴신을 효과적으로 돕는 역할과 춤가락리듬을 장단에 실어 춤을 리드미컬하게 한다. 다섯째, 북방몽골리언들은 기마민족이어서 말을 타고 달리면 상체가 안장 위에서 출썽출썽거리며 어깨와 몸통과 하지가 저절로 상하굴신운동을 하게 된다. 지금도 몽골춤에는 말달릴 때처럼 어깨를 출썽거리는 어깨춤을 민속춤에서 추며, 한국인을 포함한 북방계 몽골리언들은 기마민족의 후손으로 이러한 어깨춤 문화가 농경시대를 거쳐 오늘날까지도 전승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남방계는 더운지방에 살기 때문에 운동량이 크면 금방 땀이 나서 춤을 오래 출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자연히 운동량이 적은 좌우굴신춤이 보편화되어 앓은뱅이춤이 많아 졌다. 좌우굴신춤은 몸통은 그대로 두고 다리를 굽힌 채 몸통만 좌우로 움직이면 되는데 골반이 상대적으로 큰 여성들은 자연히 엉덩이춤으로 발전하게 된다. 엉덩이춤은 많이 추어도 숨이 차지 않기 때문에 남방계 굴신춤의 대명사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엉덩이춤은 풍요다산을 상징하는 여성자궁춤으로 발전하였고, 섹시한 성애춤의 한 양상으로도 발전하였다.

이상과 같이 북방춤과 남방춤을 종합적으로 비교해보면 북방은 몸통, 팔목춤 등 온몸을 움직이는 동체(胴體)부위춤이 발달했고, 남방은 운동량이 작으면서 신체적 특징을 살린 눈춤, 목춤, 손가락춤 등의 말초(末梢)부위춤이 발달하였다.

III. 동서양 생업과 식생활 문명차이와 춤 특징

인류가 살아온 생업은 구석기시대에는 식량채집자로서 생활하였다. 그 전기에는 유인원처럼 인류가 과일, 곤충, 나무뿌리 등을 채집하여 살아가는 채취경제생활을 영위하였다. 중기에는 동물사냥을 주로하는 수렵경제생활의 시기였으며, 후기에는 하천이나 해변에서 물고기를 잡아먹고 사는 어로경제생활의 시기였다.¹⁶⁾ 또한 여자는 열매나 곤충을 채취하고 남자들은 사냥을 하였다. 온대지방에서는 여름에는 어로생활을 겨울에는 사냥생활을 하였다.¹⁷⁾

그러다가 인류는 빙하기 말기에 급격한 기후변동이 일어나 지금까지의 인간과 자연과의 균형을 깨뜨려버렸다. 여기에서 인간은 식량을 증대시키기 위해 식물재배와 가축사육에 관한 지식을 활용해야만 하게 되었다. 신석기시대에 들어서 마제석기를 사용하고 토기를 이용하게 되었으며, 농목생활을 하기에 이르렀다. 인간은 비로소 식량채집자의 단계를 넘어 식량생산자의 지위로 나아가게 되었다.

인간의 자연에 대한 의존도는 식물을 재배함에 따라 크게 저하되었으며, 마침내 무한한 가능성을 내포한 신세계가 열리게 되었다. 농목생활의 시작은 인류의 생활양식을 근본적으로 변혁시켰기 때문에 이를 신석기혁명이라고 부른다. 이 혁명은 분명히 인류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임에 틀림없다.

16) 문화사 교재연구회(1996). 『동서양문화사』(서울: 학문사), p. 11.

17) 이병옥(2001). 암각화를 통해본 선사시대 춤, 『댄스포럼』 2001년12월호, pp. 64-74.

신석기혁명은 인간을 정주(定住)하는 존재로 만들어 놓았다. 식물을 재배하고 동물을 기르기 위해서는 한곳에 정착해야 했다. 농목생활이 인간을 영구적으로 정착시키고 촌락을 이룰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는 의미에서 볼 때 신석기혁명은 기술적 혁명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사회적 혁명이기도 하다. 정주생활이 인구증가를 가져 왔다. 인구증가는 근대에만 독특한 현상은 아니었으며, 주요한 기술적 진보가 이루어질 때면 언제나 현저한 인구증가의 현상을 보여 왔다. 그것은 기술적 진보가 생산력을 증대시켜 많은 사람들을 한곳에서 부양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문명시대가 되면서 동서양은 점차 기후풍토와 환경에 따라서 각기 독자적인 문화를 이루면서 살게 되었다.

서양의 북부유럽지역은 해양성 온난 기후의 덕으로 여름에는 고온건조하고 겨울에도 온난하여 초원지대가 많아 유목생활을 하다가 정착목축과 농업을 병행하였다.

유럽남부지역의 기후도 연중 온화하고 비가 많으나 빙하에 의해 퇴적된 토양이 척박하기 때문에 경지에서 사료 작물과 식량 작물을 재배하는 수목농업과 가축사육 병행하는 정착생활을 하였다.

따라서 서양은 안정된 문명사회가 되면서 유목(遊牧)에서 정목(定牧)과 농업을 병행하게 되었고, 밀농사로 빵을 만들어 먹고, 고기와 유제품을 먹는 육식생활이 발달하였다. 그러나 수렵생활과 유목생활의 연장선에서 유목민의 문명적 특성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 육식동물처럼 공격적이고 남성적이면서 전투적인 민족성과 정복적이고 진취적인 자연관이 강하게 나타나, 춤에서도 인간이 생활 속에 움직일 수 있는 동작한계를 넘어서는 춤사위와 도전적이고 직선적인 춤사위, 기교적인 춤사위 등 자연극복춤이 발달하였다.

한편 동양의 온대지역은 사계절이 뚜렷하고 여름에 강수량이 많아 농업이 발달하여 원시수렵생활을 청산하고 쌀을 주식으로 하는 곡식과 채식 중심의 식생활문화가 자리잡게 되었다. 이로 인해 초식동물처럼 온순하고 집단성이 강하고 방어적이면서 낙천적이고 여성적인 민족성과 자연관이 형성되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춤사위와 인체관절의 가동범위 내에서 움직이

는 곡선적이고 고운 춤사위, 자연순응적 춤사위로 자연친화춤이 발달하였다.

이러한 생업과 식생활 문명은 그대로 춤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먼저 동양인들은 농경생활로 농경모방춤과 풍농풍요기원춤, 대지와 풍농을 여성의 출산을 동일시하는 유감주술적(類感呪術的, analogy charm, sympathetic magic) 여성춤이 많다. 상고시대에는 풍농기원과 추수감사의 제천의식춤이 성행하였고 달밤춤인 강강술래같은 만월숭배(滿月崇拜)춤이 성행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부여(夫餘)의 영고(迎鼓), 예(濊)의 무천(舞天), 고구려의 동맹(東盟), 마한의 소도제(蘇塗祭) 등의 제천의식이 있었다.

이는 모두 천신이 대지로 하강하여 농사가 잘 되기를 기원하는 땅에서의 영광(서양은 하늘에 영광을 찾는 천상지향)을 찾는 대지지향적 춤사상이다. 동양의 농경민들의 춤을 모두 땅을 향에 춤을 추고 엎드려 추는 복무(伏舞)를 춘다. 대지지향적 춤사상은 단군신화에서도 천제(天帝)인 환인(桓因)의 아들 환웅(桓雄)은 천상에서도 땅을 동경하여 지상(地上)으로 내려온 하강(下降)천신(天神)이다. 웅녀(熊女)와 결혼하여 단군을 낳는다. 범종의 비천상(飛天像)을 비롯한 모든 천신그림은 옷자락과 걸친 천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강(下降)선녀(仙女) 형상이다. 따라서 천신춤은 모두 하강천신춤이다.

이에 비해 서양의 목축생활은 척박한 땅에서는 풀밖에 기대할 수 없고 그 풀을 먹 사는 양과 염소 등의 가축을 길러 젖과 고기를 먹고살면서 항상 하늘을 동경하며 살아왔다. 가축도 대낮에만 활동하고 밤에는 잠자기는 때문에 목축생활은 대낮중심문화이어서 대낮에 춤추고 카니발을 벌이는 대낮춤이 발달하였다.

또한 서양은 따뜻하지만 북극권에 가까운 위도(緯度)여서 일조량이 부족하여 피부혈색도 백색이 되었으며, 안개 낀 날이 지나고 맑은 태양이 빛나면 그들은 옷을 벗고 일광욕을 받으며 태양의 고마움을 느끼는 태양숭배춤이 발달하였고, 일용한 양식(고기와 빵)을 먹을 수 있게 한 하늘에 영광을 돌리고 천상지향(天上志向)의 춤을 추었다. 따라서 땅바닥에 엎드려 추는 복무(伏舞)는 없고 모두 입무(立舞)뿐이다. 생활양식도 서양은 입식(立式)

문화이다. 반대로 한국을 비롯한 동양권은 항상 땅과 함께하는 좌식(座式) 문화가 발달하였다.

수렵과 목축의 담당자는 주로 남자들로 남성적인 춤이 성행하였다. 강렬하고 하늘을 향해 도약춤을 추고 전투적인 춤을 추고 육식으로 인하여 에너지가 넘쳐흘러 타민족을 정복하는 전투춤과 무기춤이 성행하였고, 정렬적이고 활달한 발춤과 진취적인 대형변화춤을 창출하였다. 하늘만을 빼놓고는 모든 자연을 극복하고 정복하는 자연정복의 정신이 춤에서도 생성되었다. 춤사위는 자연의 법칙을 딛고 극적인 움직임을 창출하고 발끝으로 서서 하늘에 좀더 가까이 하고자 뛰는 자연극복춤을 추었다.

동양인의 뛰는춤은 대지(농지)를 밟기 위해 뛰는 답지무(踏地舞)이지만, 서양의 뛰는 춤은 하늘에 가까이 하려는 염원의 도약무(跳躍舞)이다. 발바닥의 디딤새도 동양인은 뛰었다 땅을 딛을 때에도 대지를 자근자근 밟기 위해 뒤통치부터 먼저하면서 발바닥 전체로 옮겨 밟는 뒤통치디딤새춤을 추는데, 서양인은 높이 뛰었다 떨어지는 충격을 완충시키기 위해 발끝부터 딛어 단계적으로 뒤통치까지 디더 지면에 충격을 완화시키는 발끝디딤새춤을 춘다.

그리스 신화에도 만물의 신인 제우스신도 하늘에 있는 천신이며, 태양신인 아폴로도 하늘의 천신이며, 모든 신들이 하늘에 계시며 하늘만을 동경하며 제전(祭典)을 펼쳤다. 로마신화도 그렇고 기독교 정신과 사상도 그대로 이어받았다. 건축물도 교회도 성당도 모두 하늘을 향해 치솟고 고층빌딩을 짓고 산다, 건물천장에 천신과 예수상을 그려놓았다. 햇빛을 통해 하늘의 기운이 실내로 들어오게 스테인드 글래스가 발달하였다. 선녀들의 그림도 모두 하늘로 오르는 형상이다. 따라서 서양의 천신춤은 모두 상승천신춤이다.

동양의 농경민족은 땅을 숭배하여 항상 대지를 밟고 살며, 대지에서 떨어지는 2층 이상의 건물이 없다. 즉 문열고 나가면 바로 땅에서 농사지을 수 있는 것이 농경민족의 특색이다. 그래서 항상 땅에 가까이 살면서 땅만을

18) 정병호(1999). 『한국의 전통춤』(서울: 집문당), p. 292.

의지하면서 땅을 쳐다보면서 춤을 추면서 풍농을 기원하는 대지에착적 춤¹⁸⁾이 생겨났다. 그래서 춤동작적인 면에서도 땅을 향해 발을 갈고 모을 심고 김매기를 하는 무릎 굴신(屈伸)춤이 발달하였으나, 서양은 하늘을 향해 열망하면서 도약하는 무릎 신장(伸張)춤이 발달하였다.

원시시대에는 남성은 수렵을 했고, 여자는 열매채취를 했다. 남성수렵은 그대로 남성유목으로 이어졌고, 열매채취는 그대로 여성농경으로 이어졌다(지금은 남자도 함께 농사를 짓지만 동남아시아 소수부족들은 아직도 여성들만 농사짓는 곳도 있다). 땅은 여성이며, 하늘은 남성이다. 또한 달을 여성이며 해는 남성이다. 동양은 강강술래처럼 달밤춤이며 만월승배춤이 많다. 달에게서 음기(陰氣)를 많이 받아야 풍요다산을 할 수 있다는 농경민족의 춤의 우주관에서 생성된 여성춤이다. 반대로 서양춤의 우주관은 태양승배춤이며, 밝은 대낮춤이다. 밝은 낮춤은 남성춤이다. 서양의 포우크댄스나 궁정무용도 남성이 리드하는 쌍쌍춤, 짝춤이다.

농사짓는 노동동작은 힘을 한쪽으로 모아 팽이질, 도리깨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춤사위에서도 노동모방적인 수족상응(手足相應)의 춤이다. 이미 마한시대부터 5월 파종과 10월 추수 후에 제천의식춤에서 수족상응춤이 있어 왔고, 오늘날까지 전승되는 탈춤과 여러 민속춤에서 손발을 함께 들었다 내렸다하는 춤사위가 보편화되었다. 이 수족상응춤은 같은 쪽 손발을 같이 들었다 땅으로 힘을 내려 누르는데는 효과적인 동작이다. 그러나 이 동작은 하늘로 솟는 것은 한계가 있고 어색하다. 이와 반대로 수족대응(手足對應, 手足相反)춤¹⁹⁾은 몸을 위로 솟구치는데 적합한 서양춤에서 볼 수 있는 천향(天向)춤이고, 수족상응춤은 손발을 들지 않는 지면쪽의 발이 땅에서 떨어지지 않아 도약에 어려운 점이 있는 지향(地향)의 춤이다.

농사일은 대부분 손으로 짓는다. 씨뿌리고 김매고 추수하는 모든 노동은 손으로 한다. 그래서 농경민족은 손춤과 팔춤을 잘 춘다. 당연히 농경모방춤

19) 수족상응의 반대어로 같은 개념이지만 이병옥은 [수족대응(手足對應)]이라고 표현하고, 정병호는 [수족상반(手足相反)]이라고 표현함. 이병옥(2000), 『한국민속학개론』(서울: 노리), p. 81. 정병호(1999), p. 300.

은 모두가 손동작모방춤이기 때문이다. 유목민족은 양떼를 몰고 풀을 찾아 하루종일 옮겨다닌다. 모두 다리품을 팔아야 목축이 잘 된다. 그래서 다리가 튼튼하고 기동력이 좋아 다양한 걸음걸이춤(step)과 발춤이 발달하였다.

또한 이러한 동양인의 손팔춤은 손팔동작의 시작과 끝이 불분명하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음춤을 추는데 비해, 서양춤은 다리 걸음과 발중심으로 춤을 추니 춤동작의 시작과 끝이 분명히 나타나고 다시 반복하는 매듭춤을 춘다.

또한 농경노동은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며 장시간 일을 해야하기 때문에 과격한 움직임이나 노동은 금방 지쳐버려 농경효과를 얻을 수 없다. 따라서 노동의 속도는 절대로 심장박동수에 맞출 수 없고 조금 느린 호흡의 리듬에 맞추어 일을 해야 지치지 않고 오랫동안 농사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동양인들의 춤은 호흡에 맞춰 춤추는 호흡춤을 춘다. 그리고 호흡은 박자개념으로 보면 3박자 계열이어서 한국춤은 3박자춤이 많고 느린춤이 많다. 이런 느린춤은 동양춤의 특징이기도 하다. 물론 인류의 춤걸음 박자는 인간의 두발 걸음에서 생성된 2박자, 4박자가 기본이다. 그래서 동양춤에서도 2박자, 4박자 계열의 리듬도 많다. 그러나 이 리듬은 우리나라 정간보(井間譜)에서 보듯이 3음절1박(3정1박)이라는 리듬악보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것은 3박자를 빠르게 축소한 1박자를 겹리듬으로 만든 짝수박자이다. 즉 3박자에 뿌리를 둔 호흡박자와 이족보행(二足步行)의 걸음박자를 절묘하게 결합시킨 농경인류의 춤가락이다. 굿거리장단은 뛰어다닐 필요가 없는 농경민의 길굿춤에서 생성된 춤가락의 대표적인 장단이며, 사뿐사뿐 뛰는 자진모리장단(3채)은 3음절1박을 좀더 빠르게 하여 생성시킨 신명의 장단이다. 그러나 휘모리장단(2채)은 농악의 마무리와 끝맺음에서만 잠깐 컷던 심박춤가락이며, 무당의 점신의 과정에서만 나타난다. 승무에서도 클라이맥스의 휘모리가락에는 춤을 추지 않고 북가락만 연주하고 춤을 추지 않는다.

이에 비해 서양인들은 목축을 하는데 양떼를 모는 것은 기동력이 있어야 한다. 말을 타고 목초지를 찾아 멀리 가야하고 흩어지는 양떼를 빨리 달려가 몰아와야 한다. 그리고 초원에 도착하면 늘어지게 쉬면 된다. 그러니까

순발력과 기동력이 유목생활의 필수이다. 순발력과 기동력은 호흡속도로는 절대 안된다. 이때는 심장박동에 맞는 기동력이 발휘되어야 한다. 포식동물들도 사냥감을 놓치지 않으려면 마찬가지로 튼튼한 심장이 있어야 하며, 인류의 원시수렵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였으며, 이것은 유목민들의 삶 속에 그대로 전승되었다. 그래서 서양춤은 이러한 문명적 환경에서 심박춤이 생성되었다. 또한 심박춤의 박자는 2박자 계열춤이다. 이것이 점차 4박자, 8박자로 진화되었다가 후대에 3박자 춤문화가 생성되었다.

또한 농경민들은 호흡의 리듬에 느리게 춤을 추면서 내면적인 멋을 내었고, 조상신과 천신, 농경신에게 풍농을 기원하고 풍년을 마음 속으로 감사하면서 춤을 추었기 때문에 느린춤과 내면춤을 추었다. 따라서 동양춤은 겉으로 나타나는 기교적인 춤보다는 멋들어진 춤과 겉은 부드러우나 내면에서는 풍농기원의 절실함과 마음 속의 흥(興)과 기(氣)가 용솟음치는 외유내강춤이며 이것이 잘 추고 못 추고의 평가기준이 된다.

그러나 유목민의 춤은 빠른 심박속도에서 내면적인 멋을 생각할 겨를이 없으며, 형식과 기교적인 맛을 잘 살려야 잘 추는 춤이 된다. 그래서 겉으로 잘 추는 빠른춤, 외향춤, 내유외강춤이 특성화되었다.

IV. 결(結) - 동서양 춤정신과 양상 비교

우리인류는 아프리카 유인원으로부터 진화된 단일조상으로부터 분화되어 세계 여러 대륙으로 진출 정착하여 그 지역 기후풍토와 생태환경에 적응하면서 형질이 변하였고, 각기 다른 문명을 수립하면서 이질적 요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현상은 모든 생활문화에서 비교가 되고있으며, 역시 춤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는 무용인류학의 중요한 과제로서 전세계 인류의 춤문화를 모두 연구하여 형질인류학과 문화인류학적 분석을 통해서 밝혀야할 연구이기도 하다

본고는 동서양 춤특징의 원인이 되는 형질의 구체적인 실증자료나 과학적 수치를 제시하지는 못했지만, 세계 보편성과 현상적 특성을 토대로 형질과 문화인류학적 입장에서 비교한 기초연구였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보다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조사하여 좀더 세부적이고 지역적인 차이까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은 동양춤과 서양춤의 특징을 대비적으로 비교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먼저 형질적 측면에서 동서양의 차이로 나타난 춤양상은 아래와 같다.

① 동양인은 서양인보다 작은 키와 짧은 팔다리와 미미한 얼굴이 관객에

〈표 1〉 동양춤과 서양춤의 춤정신과 특징 비교

지역 춤 정신	동양춤	서양춤	비 고
우주관	대지지향(大地志向)춤 무릎굴신(屈伸)춤 복무(伏舞) 답지무(踏地舞) 하강천신춤(飛天舞) 만월승배춤(달밤춤)	천상지향(天上志向)춤 무릎신장(伸張)춤 입무(立舞) 도약무(跳躍舞) 상승천신춤(昇天舞) 태양승배춤(대낮춤)	춤의 방향과 목표 지신과 천신사상
자연관 (생활관)	자연친화(自然親和)춤 뒤꿈치딛음춤(밟음) 여성적인 춤 느린춤(정착생활) 방어적인춤 풍농모방춤	자연극복(自然克服)춤 발끝딛음춤(찌름) 남성적인 춤 빠른춤(이동생활) 공격적인춤 대형변화춤(사냥, 전투)	자연순응과 정복 풍농=여성=달(陰曆) 풍목=남성=낮(陽曆)
신체관 (노동관)	상체중심춤(손춤) 수족상응(手足相應)춤 호흡춤(3박자춤) 가슴오그린춤	하체중심춤(다리춤) 수족대응(手足對應)춤 심박춤(2박자춤) 가슴편춤	노동신체부위 중시 노동동작모방
예술관	내면중시춤 외유내강(外柔內剛)춤 이음춤(無斷素) 감춤의 춤(정신미춤) 곡선춤 고운춤	외향중시춤 내유외강(內柔外剛)춤 매듭춤(有斷素) 노출의 춤(육체미춤) 직선춤 기교춤	춤의 표현성 춤의 미적 가치

게 잘 보일 수 있는 근거리춤과 근접공연의 공간구조가 발달하였고, 서양은 동양보다는 원거리춤과 대극장이 발달하였다. 이에 따라 전통춤 공연은 서양식 극장과는 다른 독창적인 전통극장이 필요하다.

② 무릎자세와 걸음이 동양인은 빙하기를 거치면서 무릎 굴신(屈伸)걸음과 자세가 보편화되었고, 서양인은 따뜻함으로 무릎 신장(伸張)걸음과 자세가 형성되었다.

③ 동양은 추위로 오그린 가슴춤이, 서양은 펴는 가슴춤이 형성되었다.

④ 동양은 추위로 옷을 많이 입으며, 짧은 팔다리를 잘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심성으로 육체감춤의 춤이 보편화되었고, 서양은 동양보다 따뜻하고, 미끈한 팔다리춤을 잘 보이게 하는 노출의 춤이 보편화되었다.

덧붙여서 동양의 북방춤과 남방춤의 차이는 북방의 어깨춤과 남방의 엉덩이춤, 북방의 상하굴신춤과 남방의 좌우굴신춤, 북방의 몸통, 어깨춤, 팔목춤 등의 동체(胴體)부위춤과 남방의 눈춤, 목춤, 손가락춤 등의 말초(末梢)부위춤이 발달하였다.

〈표 1〉은 동서양의 생업과 식생활 습성에서 비롯한 문명적 차이에서 나타나는 춤특징과 춤정신을 정리하였다. 동양은 농경중심의 채식민족성에서 비롯된 춤의 특징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서양은 유목과 목축업의 육식민족성에서 비롯한 춤특징을 비교한 내용이다.

■ 참고문헌

김말복(2001). 춤에 나타난 동서양 사고, 『무용예술학 연구』 제6집, 한국무용예술학회

문화사 교재연구회(1996). 『동서양문화사』, 서울: 학문사.

이병옥(2000). 『한국무용민속학 개론』, 서울: 도서출판 노리.

_____(2001). 암각화를 통해본 선사시대 춤, 『댄스포럼』 2001년 12월호.

이영록(1995). 『인류의 기원』, 서울: 범문사.

정병호(1999). 『한국의 전통춤』, 서울: 집문당.

정수일(2001). 『고대문명교류사』. 서울: 사계절출판사.

http://jongmoon.pe.kr/hakseup__geo/geow__hakseup/injong__munha/injongmunha.htm

<http://www.chemmate.com/sence/s35.htm>

<http://www.burimhong.pe.kr/news02/008%20han%20min%20jok.htm>

<http://my.dreamwiz.com/geophill/study/study2044.html>

<http://www3.joins.co.kr/mme/world/race/race.htm>

Abstract

Comparative Study of the Primitive Characters of the Dance in View of Differences between the Eastern and the Western Culture

Byoungok Lee
Professor of Dance
Yong I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primitive characters of the dance, which were created in the Eastern civilization and the Western separately. That is also a main issue for the study of dancing anthropology.

First due to the differences in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and the natural circumstances, the following differences were created between in the dances of the each.

1. In the Eastern, near view dances and stage structure fit for close viewed performance has been developed to allow the short arms and legs and the smooth and flat face of a dancer to be shown to the spectator, while the Western developed distant view dances and the grand theater.

2. Because having experienced the glacial epoch, the Eastern people generally have a walking form and a posture of bent knee, while, having lived in the warm area, the Western have a walking form and a posture of extended knee.

3. Living in the relatively cold area, the Eastern have created dances with chest shrunk, while dances with chest stretched.

4. The Eastern usually have enjoyed dances with the body covered because of the relatively cold weather and the psychological attitude reluctant to expose their short arms and legs, while the Western could enjoy many dances showing their slim arms and legs effectively due to the warm weather.

In addition, the Eastern dances can be divided into the northern and the southern. While in the northern area, generally the trunk dances, including shoulder dance, up-and-down bending dance, torso dance and wrist dance, have developed, the southern people have developed dances using usually the terminal parts such as

hip dance, side-to-side bending dance, eye dance, neck dance and finger dance.

And then this study compar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dances and the spirits therein generated from the methods for living and the eating habits. The racial traits with vegetarian habit are reflected in the Eastern dances, while the characteristics of meat-eating races are founded in the Western.

1. For their views of the universe, the Eastern dances are land-oriented, using bent knee, with stooping, treading on the land, like a landing celestial being and worshipping the full moon, while the Western are sky-oriented, using extended knee, with erecting, jumping on the land, like an ascending to the heaving and worshipping the sun.

2. For their views of the nature, the Eastern dances are nature-friendly, stepping on the heel, feminine, static, defensive, reminding of bumper harvest, while the Western are conquering nature, stepping on the tiptoe, masculine, dynamic, aggressive, reminding great movement in hunting or battle.

3. For the views of the body, the Eastern are upper-body-based, seeking coordination between hand and foot, according to the beat of breath (three-four time) and with chest shrugged while the Western are lower-body-based, seeking corresponding between hand and foot, according to the beat of heart beating (four-four time) and with chest extended.

4. For the views of the art, the Eastern are inward, successive, concealing, curvilinear and graceful, while the Western are outward, separating, exposing, rectilinear and technical.